

무주군, 생활인구 증대 나선다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협력 'BETTER' 관광 인구 증진 지원 사업 참여 관광 스타트업 모집

무주군이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와 협력해 '2025 BETTER' 관광 인구 증진 지원 사업(이하 '2025 BETTER' 사업)에 참여할 관광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가 '2025 BETTER'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BETTER' 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관광 스타트업을 통해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 벤처를 비롯해 상품을 실증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사업 주제는 '리셋 한스폰, 충전 한모듬'으로 기존의 관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도내 기업은 물론, 지역



무주군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2025 BETTER' 관광 인구 증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광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하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등 총 7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는 31일까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 (<https://touraz.kr>)에서 확인·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실증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금 4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구축 등의 기회는 물론, 후속 투자 연계, 홍보·관료 개척 지원 등의 기회도 주어진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BETTER 프로젝트가 무주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주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스타트업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주도 2025 BETTER 리셋 한스폰, 충전 한모듬을 통해 자연특별시의 매력을 한껏 되살려 인구수별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성실 근로자 46명 입국 추진으로 농가 일손 부담 덜어

진안군은 18일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계절근로자 46명이 단체 입국해 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주 22명과 반가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1월 담당 부서인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농촌일손지원센터가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방문해 최종 면접을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우수 근로자 4명과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재입국 근로자 42명이다.

지난 1월 1차 입국한 필리핀 성실근로자 13명이 이어 이번 2차 입국은 본격적인 영농기에 접어든 농가주들에



계 이번 입국은 더없이 반가운 만남이었다.

이 날은 농가주와 근로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 등에 관한 유의 사항 안내를 듣고 근로자들과 함께 귀가 했다. 근로자들은 영농기 동안 각 가정에 배치돼 영농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인력수급의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23농가 80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MOU 체결국 필리핀 계절근로자 472명, 관내 결혼이민자 4천이내 가족 초청 335명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실시한 최종 면접을 합격한 우수한 계절근로자들이 무사히 입국한 것을 중심으로 환영 한다"며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의 농사 규모와 작목별 특성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진안군 농업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 무주서 21~22일 개최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21일과 22일 양일간 무주군 무주읍 대치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지적장애를 비롯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선수 150여 명과 보호자 및 관계자 등 3백여 명(1일 기준)이 함께 할 예정이다. 선수들은 소이나루공원을 출발해 강

변도로와 대치리 원형 교차로, 차산마을을 거쳐 다시 소이나루공원으로 돌아오는 5.3km 구간을 달리게 되며 무주군은 원활한 경기 진행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대회 기간 교통안전 유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관공을 비롯한 갖길 주차 차량, 그리고 해당 구간 이동 차량 등을 통제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 체육진흥팀 노상은 팀장은 "2025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무주가 전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자전거 타기 좋은 고장임을 확인시킬 것"이라며 "도로변 토사와 잔석 등도 대회 전에 깨끗하게 정비해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완벽한 대회 환경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홍보에도 힘써 주면 도로 주차 금지와 서행 등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올해 2025년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 외에도 '무주그라운드·메디오폰드대회', '문체부관광기 생활체육자전거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3년 연속 선정 도비 7000만원 확보

진안군이 2025년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선정돼 도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학교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장학진흥원이 분부 캠퍼스를 맡고 시군에 특성과 캠퍼스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는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지전대학교 △호원대학교 △군장대학교 총 7개의 대학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8개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대상군을 고려한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석대학교는 '나와너, 우리의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대상 직업 재활을 돕고, 원광대학교는



진안군, 3년 연속 선정 도비 7000만원 확보

성인 문해자들을 위한 문화예술 학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드론 방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용 드론 공동방제 교육,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평생교육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18일 군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부처단계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장수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부처단계 대응보고회

장수군은 18일 군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부처단계 대응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중앙부처 및 전북자치도의 예산 확보 가능성 및 동향을 분석해 최종 선정된 6개 주요 국비 건의 사업과 7개 중점 공모사업 등 국도비 865억원 규모의 29개 사업의 부서별 추진상황,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국비와 공모사업 최대 확보를 위한 단계적 주요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내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으로는 △장수군 공설장사시설 조성사업(190억원) △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82억원)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61억원) 등이 포

함됐다. 여기에 중점 공모사업은 △비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00억원) △준고랭지 여름채소 스마트지구 조성사업(40억원) 등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사업들은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공조를 강화해 예산 반영을 위한 정부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정부의 강력한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의 예산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종합 행정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진안군은 18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지역주민 및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군 관리 계획은 군의 개발과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 행정계획으로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 장기발전구상과 권역별 전략사업을 통한 공간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진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우리 군 개발수요에 맞는 적정용지 확보와 용도지역 및 지구 정비, 기반시설 설치 정비 등을 반영한 군 관리 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주민 공청회 이후 의회 의견 청취,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청년농 소통협의체 구성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업인들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 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 협의체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무진장지사에는 지난 17일 청년농 소통협의체를 발족하고, 청년농 농기구임 및 임대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선임대후매도 사업 등 신규사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이양희 지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 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